

참여연대의 과도한 ‘참여’



윤위중의

잠시 살펴

문재인 정부 들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활약상’이 너무나도 눈에 띈다.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탁현민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 홍일표 정책실장실 선임행정관 등 참여연대 출신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요직에 대거 포진해 있다. 얼마전 피감기관으로부터 외유성 해외출장을 갖다는 의혹으로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서로 비슷한 사상과 철학으로 뭉쳐 기존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새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물도 고이면 썩듯이 기존 정권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넘치면 차라리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권력을 뒷배경 삼은 참여연대의 ‘왕성한 활동’을 보면 딱 이 말이 생각난다. 권력에 대한 감시

와 비판을 하겠다는 참여연대는 그 선을 넘어 그들의 의지와 철학을 관철시키고, 그들의 뜻에 어긋나면 ‘여론재판’을 하려 든다.

당장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참여연대는 17일 삼삼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다루는 감리위원회 전원에 대한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리위원장을 비롯한 두 명을 위원회에서 스스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정부, 즉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불신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게다가 감리위원회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자문기구 성격의 감리위원들이 본인 명단과 이력이 낱알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참여연대의 입장에 반하는 주장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본인의 발언이 참여연대 시각에 거슬릴 경우 참여연대의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인데….

금융위가 감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감리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달리 자문기구여서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참여연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것이다.

16일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최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도 열렸다. 이 자리는 현대차그룹이 3월 28일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을 현대글로벌비스와 합병하는 ‘출자구조 재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대거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토론회에 없었다. ‘그들만의 리그’로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한 셈이었다.

참여연대는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시민단체다. 그런데 참여연대 출신들이 권력의 요직에 포진하면서 이제는 참여연대 스스로 감시와 비판을 넘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기식 낙마에서 보여준 것처럼, 참여연대는 그들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겠다는 참여연대의 ‘참여 범위와 수위’가 과도하다면, 그리고 참여연대 스스로가 권력이 된다면 이 참여연대는 누가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KDB산업銀, 中공상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

KDB산업은행은 16일 중국공상은행(ICBC)과 2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도 내에서 끌어낼 수 있는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Committed Credit Line) 방식이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왼쪽부터) KDB산업은행 조소현 부행장, 중국공상은행 후하오(Hu Hao, 胡浩) 부행장.

/산업은행



우리은행, ‘우리 투게더 고객감사 이벤트’ 경품 증정식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실시한 위비 여자 농구단의 6시즌 연속 통합 우승과 V10 달성을 기념해 ‘우리 투게더 고객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고객은 무선 청소기 등 경품과 위비농구단이 고객의 성공을 기원하며 농구단의 열정과 우승 기운을 담아 준비한 우승모자, 친필 사인 기념 티셔츠, 사인볼을 직접 전달 받았다.

/우리은행

데일리금융, 임승원 대표이사 선임

신승현·임승원 각자대표 체제

데일리금융그룹은 16일 임승원 대표(사진)를 추가 선임해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대외협력과 기업공개(IPO)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그룹 계열사 간 업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기존 신승현 대표는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 자회사 관리, 투자유치 등 사업운영에 집중하며, 향후 성장을 위한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 대표는 현 옐로모바일 부사장으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및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를 거쳐 한국IR협의회 상근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한국거래소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인사 영입을 통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시장 내 입지를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금융그룹은 2015년 2월에 설립된 국내 최대 핀테크 기업이다.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금융플랫폼, 암호화폐 등을 핵심 사업부문으로 두고 있으며, 데일리인텔리전스 및 쿼터백, 코인원, 브로콜리, 뉴지스탁, 디레몬 등 15개 회사가 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험업계 二重苦



기자 수첩

이 봉 준
(파인앤스&마켓)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환희에 젖었던 보험업계가 올 들어 높은 손해율과 낮은 실적으로 올상이다. 연초 계절적 영향으로 주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모두 악화했고 전년 동기 반영된 일회성 요인 등으로 올 1분기 보험사 실적은 기저효과를 보였다.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곤 1분기 예상을 밑도는 실적으로 올해 순이익 역시 저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선데 달진격으로 보험사들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KS)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등 탄탄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대형

사와 달리 중소형 보험사는 새 회계기준 등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으로 현저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험개발원이 나서 중소형 보험사와 새 회계제도 도입을 대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보험분야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고질병인 불완전 판매비율 등 개선을 위해 일부 부적절한 보험사 상품의 경우 판매중지까지 검토해 소비자 신뢰저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경우 보험사 영업정지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적악화와 자본확충 등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는보험업계는 이 같은 당국발(發) 발언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먹고 사는 보험사 입장에서 당국의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에 언급되는 것 만으로도 신뢰도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소비자만족도 제고는 보험사들이 우선적으로 힘쓰는 분야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란 경제전문기관의 보고가 잇따른다. 금리인상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으로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보험사 경영방안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0년간의 저금리 기조 속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사들로서금리인상에 따른 투자처 발굴이 호재로 작용한다. 올해 실적 악화로 수익성 저하를 호소하는 보험사들은 주어진 환경에 어려움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수익성 제고 방안을 다방면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bj35sea@

인사

-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정책조정총괄과장 강기룡 △재정전략과장 장정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김응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체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39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52호

-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겸 수석부행장 강승중
- ◆동의대 △ 산학협력단장 겸 기술이전센터 소장 겸 LINC+사업단장 이임건 △ 산학협력단 부단장 겸 LINC+사업단 부단장 서진석 △ CT융복합연구소장 김진덕
- ◆데일리금융그룹 △ 대표이사 임승원
- ◆경희사이버대학교 △ 사무처장 조병춘

부음

- ▲김난순 씨 별세, 박용진 전 KBO 경기감독관 씨 부인상, 박준은·예안 모친상=15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17일 오전 9시 20분, 02-923-4442.
- ▲문동식씨 별세, 문성필(한국투자증권 전

무)씨 부친상=16일 오전 8시, 미국 펜실베이니아 무어앤드스니어 장례식장(Moore & Snear Funeral Home, Conshohocken, PA, USA), 발인 18일 오전 10시(현지 시간), 02-3276-5933.

▲이병윤 씨 별세, 이석기·홍기(우석대학교 과학기술대학장)·혜진(재 브라질)·순기(재미 치과의사)씨 부친상, 신중현(온게임엔터테인먼트 대표)씨 장인상=15일 오후 8시, 전주예수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예배 19일 오전 9시 전주제일교회, 010-4651-1444.

▲최강순씨 별세, 이승배(광남일보 전무)씨 장모상=15일 오후 4시, 전남 나주시 이창동 영산포제일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9시, 장지 나주시 영산포 선영, 061-334-1444.



우리카드, 다문화가정 지원 맞손

우리카드가 한·베(한국·베트남) 가족 모임과 광화문 우리카드 본사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우리카드는 한·베 가족 모임 제휴카드를 출시해 이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카드 이용액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카드



롯데손보, 남산공원 돌보미 행사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5일 샤롯데봉사단을 포함한 임직원 65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산 돌보미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산 돌보미 행사는 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인 남산 공원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가꾸고 임직원의 환경의식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롯데손보가 서울시 중부공원 녹지사업소와 함께 진행하는 환경봉사활동이다.

/롯데손보